

# ‘강진 고려청자 슈퍼챗린지’ 조회수 2000만 달성

### 6곡 음원 · 30개 영상 콘텐츠... 유명 크리에이터들 참여 ‘화제’

강진문화관광재단이 지난달 고려청자를 소재로 만든 영상, 릴레이 콘텐츠 유튜브 페스티벌 ‘강진 고려청자 슈퍼챗린지’가 누적 조회수 약 2,000만 회를 달성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강진 고려청자 슈퍼챗린지는 콘텐츠 제작 능력 및 홍보력, 구독자 연령, 성별 등 다양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크리에이터를 선정해 고려청자를 소재로 제작한 릴레이 영상이

다.

다. 퍼프TV, 영프린스, 조선남자 대길 이, 코민 등 10팀의 크리에이터 및 2명의 래퍼, 그리고 청자조작단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참여해 6곡의 음원과 30개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으며 12월 19일 기준 누적 조회수 약 2000만을 달성했다.

해당 영상들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강진 고려청자를 검색하면 쉽게 접할

수 있다.

영상에 달린 댓글은 “우리 외할머니, 엄마 고향이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평소에 강진 얘기하면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은 제 친구들도 강진 얘기하면 ‘아~강진! 당근 알지’라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등 이번 챗린지를 통해 강진과 고려청자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번 릴레이콘텐츠의 참가한 크리

에이터는 “영상 제작 과정을 통해 강진 고려청자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김바다 강진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조회수 2000만 이상이 가능할 만큼 강진군의 관광자원이 매력적인 콘텐츠가 풍부함을 확인했고, 앞으로 잠재력이 높은 알파세대의 중요성도 알게 됐다”며 “이번 영상 콘텐츠를 통해 강진 고려청자를 홍보하고 새로운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 ‘무안 겨울 송어축제’ 내년 1월 연다

### 14~15일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 등서 개최

무안군은 겨울철 대표 수산물로 무안5미 중 하나인 송어를 소재로 한 ‘겨울 송어축제’를 내년 1월 14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무안황도갯벌랜드와 도리포 관광자원을 연계한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와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지역 예술인과 동아리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송어잡기 체험과 송어요리 원데이 클래스, 무안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구이존, 무안의 농수산물물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

그램과 로컬 먹거리들이 운영된다.

무안의 청정갯벌에서 자란 겨울철 대표 수산물인 송어는 쫄득하고 찰진 맛이 일품이다.

동의 보감에 서는 송어에 대해 ‘위를 편하게 하고 오장을 다스리며 몸에 살이 불고 튼튼해진다. 이 물고기는 진흙을 먹으므로 백약(百藥)에 어울린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안송어는 무안의 청정 갯벌을 먹은 까닭에 ‘겨울송어 없었다 나간 자리는 필만 먹어도 달디 달디’고 할 정도로 무안 겨울 송어회 맛 이 일품이라고 할 수 있다.

**무안=박태연 기자**

## 목포, 제설작업 총력 대응 염수 사전 살포 등 집중

목포시가 오는 22~24일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제설작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7~19일 내린 21cm의 기록적인 폭설에 제설차량 6대(8.5톤 5대, 5톤 1대), 소형살포기 5대, 염수 제조기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1대를 가동하고 연화갈솔 등 제설제 300톤을 살포했지만 19일 출근길 교통정체를 막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시내 전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제설작업은 기존대로 실시하면서 실제 교통량과 현장여건을 감안해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르막·내리막 경사지 6개소에 집중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경사로 79개소 적사함에 연화갈솔을 비치하는 한편 폭설 시 새벽시간 교통신호등 점멸구간을 지정·운영하며, 살수차를 이용해 주요 경사도에 염수를 사전 살포한다. 또한 눈 예보시 새벽 3시부터 시작하는 제설작업 시간을 1시부터 2시간 앞당긴다. 건설기계연합회와 사용협약을 체결해 폭설시에는 굴삭기 등 중장비와 트럭을 상시 운용하고, 제설제도 추가 구입한다.

시 관계자는 “제설작업을 신속하고 집중력있게 실시해 교통정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면서 “시민 여러분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 우기 등 폭설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적설량이 1~5c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제설단을 통해 대응하고, 대설주의보·경보 및 5cm 이상 등 비상시에는 전직원을 투입해 인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등의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목포=김근호 기자**

## 영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날개달았다’

### (주)공감만세와 협약... 민간포털 ‘위기브’ 통한 홍보 기대

영암군은 사회적 기업 (주)공감만세와 지난 20일, 영암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암군은 공감만세가 운영하는 홍보포털인 ‘위기브(WEGIVE)’를 통해 영암군 소개, 답례품 내역 및 지정기부 이슈 등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밀착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승희 군수는 “영암군의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답례품 선정 등의 전 과정에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등 당면문제에 대응하고 영암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기 위한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이사는 “영암은 알려지지 않은 매력이 많은 곳이라 저도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전국의 잠재적 기부자들에게 영암의 가치를 적극 알리는 밀착 홍보를 통해 기부수요를 조기 선점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영암군과 공감만세는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통한 ‘영암불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영암군과 공감만세는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통한 ‘영암불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 완도, 통계 업무 도내 유일 ‘국무총리 표창’

### 지역 실정 맞는 조사 계획 수립·홍보 활동 등 높이 평가

완도군이 지난 20일 통계청이 주관한 ‘2022년 통계 업무 진흥 유공(통계 조사 부문) 포상 수여식’에서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통계 조사 유공 포상은 2022년 대규모 경제 통계 조사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및 조사 요원의 사기 진작 및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완도군은 올해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면서 도서가 많아 열악한 조사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사 계획 수립, 조사원 대상 교육 및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등 체계적이고 안전한 통계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우철 군수는 “통계 조사에 적극 참여해 준 군민과 사업체 그리고 조사요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통계 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통계 품질 향상 및 국가 통계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이두성 기자**

## 해남, 전국 최초 군민 전용 앱 ‘해남 소통넷’ 인기만점

### 지자체 유사서비스 중 유일하게 ‘유지’ 등급 운영성과 인정 받아... 군민소통공간 자리매김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 중인 해남 소통넷이 뛰어난 운영 성과를 인정받으며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최근 정부 및 지자체의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전수 분석 결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앱 가운데 65개가 폐기 또는 폐기예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앱 개발에만 들어간 예산만 18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남 소통넷만은 달랐다. 전국 지자체에서 개발한 유사 서비스 32건 중 31건이 ‘폐기’ 혹은 ‘개

선’ 등급을 받은 반면, 해남 소통넷은 유일하게 ‘유지’ 등급을 받으며 지자체 공공앱 성공적 운영의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해남군 소통넷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된 군민전용 앱으로 내 고장 정보, 민원신청, 생활민원서비스, 각종 알림정보, 마을소식까지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군정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군민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누적 가입자 1만 5,160명, 누적 게시물 수 약 1만 1,000건, 하루평균 접속률 900

명 등 큰 관심속에 군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 소통넷 내에 공공앱을 지속적으로 탑재해 군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 서비스중인 장난감도서관, 청년두드림센터, 해남사랑상품권, 주민자치위원회 외에 도다 자녀사랑카드 등을 추가한다.

소통넷은 해남군민은 물론 향우들도 이용이 가능하며, 설치 방법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소통넷을 검색, 앱을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 소통넷을 통해 군민의 군정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선 8기 소통과 참여의 ‘힐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 신안,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도입

### 내년 시행... 배출서 재활용까지 원스톱 처리

신안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 공공 청소행정 실현과 자원의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서비스는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폐가전제품을 회수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배출방법은 배출자가 직접 인터넷 www.15990903.or.kr 또는 콜센터 1599-0903으로 신청하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방문 수거한다. 원형 훼손 제품, 전기 미사용

제품을 제외한 냉장고 등 중·대형 폐가전은 단일 수거 가능하며 오디오 등 소형폐가전은 5개 이상 동시 배출 시 수거 가능하다.

대상 지역은 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입자면, 자은면, 안좌면, 팔금면, 안태면이며 연륙 된 도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 6월,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전라남도도와 자원순환공제조합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됐고, 하반기에는 시행기관인 자원순환공제조합과 협업하여 임시보관장소와 기자재 확보 등 수거기반 구축을 완료했다. **신안=박정재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갯벌 무안

무안군